

광주전남우리가곡부르기회 1월엔

하얀 겨울 하얀 추억 노래해요



14일 호신신학대 카페 티브라운 '푸른길 음악회' 등 을 계획 확정

지난 2008년 8월에 첫 발걸음을 내딛은 광주 전남우리가곡부르기회(회장 황정숙)는 매달 한차례(두번째 금요일) 꾸준히 행사를 진행해 왔다.

대중가요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노랫말과 멜로디가 어우러진 우리 가곡과 동요는 색다른 즐거움을 줬고, 학창시절의 추억도 떠오르게 했다.

회원들은 심시일반 회비를 모아 한차례씩 우리 가곡을 함께 배우고 부르면서 가곡 애찬자들이 됐다.

2011년에는 기존의 정기 모임과 함께 곡직행 행사도 준비했다. 3월 광주 남구문화회관에서 '고향의 노래', '석굴암', '별' 등 아름다운 가곡을 만든 작곡가 이수인씨를 초청해 함께 노래 부르는 시간을 마련한다. 또 6월에는 진월동 푸른길 공원에서 남구민과 함께하는 가곡 부르기도 진행할 예정이다. 그밖에 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곡가를 초청하는 자리도 마련한다.

올해 첫번째 행사는 오는 14일 오후 7시30분 호신대 내 카페 티브라운에서 열린다. 1월의 주제는 '눈 그리고 하얀 추억'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박수진씨 '눈이 내리면' 김정철씨 '겨울밤에'를 함께 배워 부르는 시간을 준비했고 회원들은 '눈꽃'(박진영), '눈'(유정심) 등을 선사한다. '옛 동산에 올라', '성불사의 밤', '떠나가는 배' 등 추억의 노래를 함께 부르는 시간은 참가자들이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기도 하다.

초청 음악가는 목포시립합창단 지휘자 하수미(사진)씨다. 하씨는 김연준곡 '무곡'과 임금수곡 '강 건너 봄이 오듯'을 들려준다. 시낭송 시간에는 최영호 남구정장이 '새해는 그대 차지'를 낭송한다. 우리가곡 부르기회를 꾸준히 지원해온 최구정장에게는 이날 감사패도 수여된다.

티켓 가격 1만원을 내면 간단한 차와 맥을거러가 제공된다. cafe.daum.net/gjkrong. 문의 016-694-4592, 062-575-5999. /김미은기자 mekim@

남도의 풍광·무등산의 얼굴을 담아

간간한 진경(眞景)전 2월8일까지 롯데갤러리

롯데갤러리는 오는 2월8일까지 신년기획 '간간한 진경(眞景)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김두석(도자기), 김보수(사진), 조병연(한국화), 유태준(사진), 최진우(한국화)씨 등이 참여해 삶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작품을 선사한다.

조병연씨는 유달산과 월출산 등 남도의 풍광을 황토 빛으로 물들인 진경산수를 선보이고, 최진우씨는 서석대 등 무등산의 다양한 얼굴을 수묵담채로 표현했다. 또 김두석씨는 분청에 조각 기법을 가미한 작품을 전시하고, 김보수씨는 4대강 공사로 인해 자연의 모습을 상실한 영산강의 현주소 보여준다. 문의 062-221-1808.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김보수 작 '2011 영산강'

“장난감에 책에 친구에... 아이들, 집에 갈 생각을 안해요”



동림동 '강아지똥 장난감 도서관' 인기

연 3만원... 1주일 장난감 1개·도서 5권 대여도

자연체험·인형극 관람... 독서토론포럼 등 운영

광주시 북구 동림동 빛고을초등학교 정문 앞 '강아지똥 장난감 도서관'. 지난 3일부터 공식적으로 장난감과 책 대여를 시작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 도서관은 방학을 맞은 아이들과 동네 엄마들로 붐볐다.

“한 점에 30만원 이상하는 고가의 장난감을 빌려 마음껏 놀게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아요. 아이와 마실나온 기분으로 찾고있는데 마음 맞는 엄마들하고 이런 저런 얘기도 할 수 있고요.”

양동에 살면서 4살 아이와 함께 매일 도서관을 찾는다. 장민정(34)씨는 “무엇보다도 또래들과 안전하게 놀게 한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며 “가까운 곳에 이런 곳이 만들어져 행운”이라고 말했다.

개관한지 이제 겨우 2주 됐지만 입소문이 나서인지 문을 여는 오전 10시쯤엔 아이들이 먼저와 기다리고 있을 정도다. 특히 30여명의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100㎡ 규모의 자유놀이실은 단연 인기다.

이곳은 기존의 작은도서관이나 어린이 도서관과는 사뭇 다르다. 도서관의 이름도 아이들에게 가장 친숙한 동화책에서 빌려와 '강아지똥'으로 결정했다.

130㎡의 도서관에는 500여점의 장난감과 1500여권의 책을 비치해 대여하며, 큰 장난감의 경우엔 현장에서 빌려볼 수도 있다.

운영방식도 특이하다. 모든 것이 회원제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연회비 3만원(기초수급권자와 장애아 보육가구

는 50% 감면)을 내고 회원이 되면 장난감과 책을 1주일 단위(1회에 한해 연장 가능) 최고 2주 간 빌릴 수 있다.

또 모든 회원은 일주일에 장난감 1개와 도서 5권을 무료로 빌릴 수 있으며, 딸기 따기, 낙농체험 등 다양한 자연체험 프로그램과 동네 어린이 벼룩시장, 인형극, 영화제 등 문화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다.

광주시의 지원으로 설치한 도서관은 광주전남진보연대 양국화해소보부에서 운영을 맡았다.

“잘 놀고 있다 엄마가 가자는 바람에 때 쓰고 있는 아이들을 볼 때면 난감합니다. ‘더 읽고 싶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 도서관의 산파역할을 했던 도서관장 김태진(42)씨는 “처음 운영해보는 거라 준비도 미흡했고 열덜덜 하지만 아이들과 함께하고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어 행복하다”고 말했다.

이 도서관의 탄생은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다. 도서관이 자리한 이곳은 얼마 전만 해도 국민임대 아파트와 일반 분양아파트 간의 갈등으로 아이들의 통학길을 가로막는 담까지 설치했던 ‘갈등’이 있었던 곳이다. 이제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광주전남진보연대는 다름으로 지역 주민 사이에 깊은 상처를 안고 있는 이곳에 소통의 공간을 열어 이를 풀어보고자 한 것이다.

김 관장은 “이런 차원에서 도서관을 아이들과 주민들이 격의없이 만나 이야기하고 노는 ‘사랑방’으로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관장은 또 “현재는 80여명의 작은 회원이지만 회원이 점차 늘어나면 독서토론포럼이나 동아리를 꾸릴 생각”이라고 밝혔다.

도서관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월요일은 장난감 소독을 위해 휴관한다. 문의 062-515-9788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고가의 장난감과 책을 쓴 가격에 대여해 이용할 수 있는 '강아지똥 장난감 도서관' 이 아이들과 지역주민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사랑 받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문학적 위상 끈추 세운다”

광주·전남 문학단체 새해 새 진용 갖춰

광주문인협회 노창수·작가회의 김경윤씨

신묘년 새해 맞은 광주·전남 문학계가 집행부를 새로 구성하는 등 힘찬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우선, 김경윤(54·김남주 기념사업회장) 신임 지회장 체제를 구축한 한국작가회의 광주전남지회는 소통과 연대를 기조로 실추된 광주·전남의 문학적 위상을 끈추 세운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조분과를 신설하는 등 분과위원회를 활성화하고 '문학들' 등 지역 문예지 등과도 연대해 발표 지면을 늘려간다는 복안이다.

또한 지회는 5월문학제와 인문학포럼 등 해마다 실시해 온 기존 사업들을 더욱 내실있게 하고 서울과 지역, 광주·전남간 원활한 소통을 위해 지역(해남, 목포 등)에서도 행사를 추진해 문학적 지평을 넓혀간다는 방침이다.

전남대 국문과를 졸업하고 해남고등학교 교사로 재직중인 김 지회장은 시집 '아름다운 사람의 마을에서 살고 싶다' 등을 썼으며 평광문화회 회장, 광주전남작가회의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광주문인협회도 지난 6일 선거에서 황하택씨를 누르고 당선된 노창수(63·광주시교육청 교육국장) 회장을 주축으로 참예된 지역문단의 활성화와 작가 역량제고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노 회장은 “문인협회의 기능을 강화해 문학이야기가 오고가고 정보가 교류하는 명실상부한 단체로 만들어가겠다”며 “홈페이지를 확대·개선하고 정기적인 문예창작 강좌 개설, 인문이나 문예지에 회원들의 작품을 낭송·발표할 수 있는 공간도 늘리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특히 올해는 “2012년 말 개관할 빛고을문학관의 기초를 닦아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광주시가 용역을 하고는 있지만 필요하다면 인물 선정, 자료 수집 등에 참여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 회장은 “이제 작가들도 생태·환경·복지 등 나눔지향의 작품을 써야 하는 시점”이라며 “사회적 공익을 담은 작품들을 모아 작품집도 내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함평 출생인 노 회장은 광주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했으며 ‘겨울 기억’ ‘선 따라 줄기’ 등의 시집과 ‘한국 현대시의 화자 연구’ 등 문학에 관한 논문을 다수 발표했다. 광주전남시조인협회장, 광주일보신춘문예회장 등을 역임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노창수 회장>



<김경윤 지회장>

미디어 종사자를 위한 천주교 용어집 발간

조금은 어려운 천주교 관련 용어를 쉽게 풀어 설명한 천주교 용어·자료집이 발간됐다.

천주교 주교회의 매스컴위원회(위원장 조한길 대주교)는 10일 '미디어 종사자를 위한 천주교 용어·자료집'(이하 용어집)을 비매품으로 발매했다.

용어집에는 천주교 기사에 자주 사용되는 570개 표제어에 대한 설명을 실었으며, 부록으로 ▲미사와 주요 예식 순서 안내 ▲미사 도구와 성당 기물 명칭 ▲천주교 주요 축일과 특별 주일 해설 ▲한국 천주교회 개관, 주요 기구 홈페이지 안내 ▲국내 천주교 성지와 유적지 정보를 함께 담았다.

한편, 용어집 내용은 매스컴위원회 홈페이지(masscom.cbck.or.kr) 자료실-문서자료실 게시판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문의 02-460-7686.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한정식 전문 레스토랑

아리랑하우스에서 맛있는 떡국 드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지난 한 해 베풀어 주신 큰 사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더욱 세심한 서비스로 고객님의 모시겠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고 희망찬 새날 새아침이 밝아옵니다. 늘 한결 같은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지난 해 부족했던 점을 채워 더 풍성하고 새로워진 모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행복한 일을 만들 수 있는 아름다운 새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금수장관광호텔아리랑하우스 | 예약문의 (062) 525-2111 | 계림동 홀플러스 건너편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 위한 대소 연회장 | 광주 와인 문화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식 | www.geumsoojang.com



올해도 즐거운 영화와 함께 하세요

상무점 컬럼버스시네마 하남점. 1관 해리포터와 죽음의 성물1부(전제), 2관 니니아연대기(전제)/세미의어드벤처(전제), 3관 라스트갓파더 (12세), 4관 라스트갓파더 (12세), 5관 트론 (12세)/세미의어드벤처(전제), 6관 트론 (12세)/메탈게이블레이드(18세), 7관 심장이 뛰다(15세)/헬로우고스트(12세), 8관 황해 (18세), 9관 헬로우고스트 (12세), 10관 심장이 뛰다(15세).

향토사랑 영화사랑 매일 심야상영 /호남최대주차장 /www.cinus.co.kr 3D디지털 상영! 상무점, 하남점 동시개봉!

MEGABOX. 1관 라스트갓파더 (12세) 최고급관, 2관 심장이 뛰다 (15세), 3관 트론 (12세)/김종욱찾기 (12세), 4관 해리포터와 죽음의 성물1부(전제) / 황해 (18세), 5관 심장이 뛰다 (15세), 6관 황해 (18세), 7관 헬로우고스트 (12세), 8관 헬로우고스트 (12세), 9관 라스트갓파더 (12세).

1관 헬로우고스트 (12세), 2관 황해(18세), 3관 라스트갓파더 (12세), 4관 해리포터와 죽음의 성물1부(전제) 트론:새로운시작 (12세), 5관 제제한로맨스(18세)/아메리칸(18세), 6관 라스트갓파더 (12세)/심장이 뛰다 (15세), 7관 심장이 뛰다 (15세).

상당원연결 방방(1번 or 2번) - 0번 1588 - 7941

구. 런던역국사거리 1544 - 0600

영원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원 www.megabox.co.kr * 호남주차타워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화 관람객에 한함) : 2시간 30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복구보건소 건너편 1544-0070

씨너스전대3D(4K)상영!!